‘경기일보 용인남녀생활체육배구대회’ 오늘 개막

77개 팀 1천400여명 참가… 사흘간 열전 돌입
男 종합부·클럽 3부·남녀 대학부 기량 겨뤄

생활체육 배구 동호인 한마당 축제인 ‘2022 경기일보 용인남녀생활체육배구대회’가 30일부터 10월2일까지 사흘간 용인특례시에서 펼쳐진다.

배구 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본보와 용인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용인시배구협회 주관, 남녀 프로 배구단이 후원한 가운데 용인실내체육관을 비롯한 10개 보조경기장에서 열전을 벌인다.

대회는 전직 선수출신들로 구성된 남자 종합부를 포함, 전국 각 지역 클럽에 소속된 아마추어 동호인 등 77개 팀 1천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대회 방식은 남자 종합부와 클럽 3부, 남녀 대학부 등으로 나뉘어 예선전을 벌인 뒤 각 조별 1·2위가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해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각 부별 남녀 우승팀에는 5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상장이 수여된다. 준우승은 각 3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와 상장이, 공동 3위에게는 상금 20만 원과 트로피·상장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각 부별 최우수선수상과 심판상, 모범상 등을 시상한다.

박세환 용인시배구협회장은 “배구 명문 도시인 용인에서 ‘경기일보배 용인 남녀생활체육 배구대회’가 열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대회는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이 참가하는 수준높은 대회다. 스포츠 정신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부상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조효상 용인시체육회장은 “배구는 타 종목에 비해 접하기 어렵지만, 한번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스포츠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배구의 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건강과 체력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개회식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1일 오전 11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용인=강한수·김경수기자

박상현 ‘트러블 샷’ 박상현이 29일 여주시 페럼골프클럽에서 열린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 17번 홀에서 트러블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향남고 이수빈, 에페 ‘최강 劍’

전국체전 펜싱

여고부 결승서 이소연에 15-5 완승
경기도 종목 첫 金… 시즌 ‘3관왕’

‘차세대 기대주’ 이수빈(화성 향남고)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 펜싱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하며 시즌 3관왕을 차지했다.

이수빈은 29일 울산광역시 동천체육관에서 벌어진 첫 날 여고부 에페 개인전 결승서 이소연(울산스포츠과학고)을 15대5로 가볍게 따돌리고 패권을 차지, 회장배 전국종별펜싱선수권(3월)과 전국종별선수권(7월) 우승에 이어 시즌 3관왕에 올랐다.

이날 이수빈은 1회전서 백승빈(경남 진주펜싱코리아클럽)을 15대5, 준준결승서 노유진(서울 중경고)을 15대8, 준결승전서 배현실(전북 이리여고)을 15대8로 일축하고 결승에 올랐다.

한편, 남자 일반부 플뢰레 개인전 이광현(화성시청)은 8강서 김경무(전남·국군체육부대)에 15대8, 준결승전서 최현수(충남체육회)에 15대13으로 승리했으나, 결승전서 하태규(대전도시공사)에 12대13으로 져 준우승했다. 남자 일반부 사브르 개인전 하한솔(성남시청)도 결승서 세계 최강자 오상욱(대전시청)에 12대15로 막혀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 밖에 여고부 사브르 김난희(수원 수일고)는 준결승전서 이윤서(서울체고)에게 12대15로 져 공동 3위에 올랐고, 플뢰레 이채희(성남여고)는 4강서 모별이(서울 창문여고)에 8대12로 패해 3위에 입상했다. 여자 일반부 플뢰레 홍효진(성남시청)과 남고부 플뢰레 이정현(광주 곤지암고)도 각각 4강서 채송오(충북도청)에 6대15, 이성빈(서울체고)에게 13대15로 져 나란히 3위에 입상했다.

황선학기자

홍한별, 여고부 권총 3관왕 탕! 탕! 탕!

〈인천예일고〉

경찰청장기 사격

25m 이어 공기권총 개인·단체 ‘金’
화성시청, 女 25m 권총 ‘시즌 V2’

홍한별(인천예일고)이 제31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여자 고등부 권총 부문에서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전날 25m 권총 개인전 우승자인 홍한별은 29일 충북 청주종합사격장에서 벌어진 3일째 여고부 공기권총 개인전 본선서 575점을 쏴 2위로 결선에 진출, 금메달결정전서 허지원(전남체고)을 16대14로 꺾고 우승했다.

홍한별은 최수아·최수빈·김소희와 팀을 이룬 단체전서도 소속팀 인천예일고가 1천693점으로 전남체고와 동률을 이뤘으나, X10에서 44-36으로 앞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3관왕이 됐다.

또 여자 일반부 25m 권총 단체전서는 김선아·김지혜·심은지가 출전한 화성시청이 1천755점을 기록, IBK기업은행(1천752점)과 부산광역시청(1천748점)에 앞서며 1위를 차지, 지난 6월 창원특례시장배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단체전 정상을 차지했다.

화성시청 우승의 주역인 김선아는 개인전 금메달결정전서 김란아(동해시청)에게 26대31로 져 준우승했다.

한편, 남자 일반부 50m 3자세 단체전서 경기도청은 1천736점으로 3위를 차지했고, 같은 종목 남대부 인천대도 1천684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황선학기자

인천, 9년 만에 ‘파이널A’ 첫승 사냥 출격

내일 안방서 ‘선두’ 울산전 앞두고 선수단 분위기 ‘고조’
부상자 복귀… ‘공격의 핵’ 에르난데스 공백 극복 과제

구단 첫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을 노리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2주만에 재개되는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 9년 만의 파이널A 첫승 사냥에 나선다.

인천은 1일 오후 4시30분 인천전용경기장에서 선두 울산과 ‘하나원큐 K리그1 2022’ 34라운드이자 파이널 라운드 A그룹 첫 경기를 치른다.

9년 만에 상위 스플릿에 진출한 인천은 승점 49(12승13무8패)로 4위에 올라있다. 파이널 라운드 5경기서 3위까지 주어지는 ACL 진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포항(55점)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66점)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6점 차의 포항을 따라잡기가 다소 버거운 상황이지만 1·2위 울산과 전북이 나란히 FA컵 준결승에 진출해 있어 이들 두 팀 중 한 팀이 우승하면 4위까지 ACL 진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4위라도 사수해야 한다.

파이널 라운드 첫 상대인 울산은 이번 시즌 개막 후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으며 17년 만의 정상을 노리고 있다. 리그 득점 2위(48골)와 최소 실점(28골)이 말해주 듯 막강한 공격력에 견고한 수비를 자랑한다.

하지만 이번 시즌 인천은 울산과의 3경기를 모두 비기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여기에 울산이 최근 6경기서 2승2무2패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데다 11골·5도움으로 팀 최다득점과 도움을 기록 중인 엄원상이 팔 부상으로 빠져있어 해볼 만하다는 계산이다.

인천은 부상 중이던 여름과 오반석이 복귀했고 강민수, 김광석, 김창수 등 베테랑 수비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델브리지가 호주 국가대표팀, 민경현과 홍시후가 U-21 국가대표에 발탁돼 자신감이 충만하다. 다만 공격의 핵인 에르난데스가 오른쪽 발목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돼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과제다.

조성환 인천 감독은 “FA컵 결과를 살펴봐야겠지만, 자력으로 ACL 진출권을 따낼 수 있도록 전승을 목표로 남은 일정을 치르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전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영웅기자

인터뷰 이원성 전국체전 경기도 선수단장

“3년을 기다렸다… 기필코 종합우승 탈환”

코로나·환절기 선수 관리 변수
민선체육회 첫 우승 ‘성원 보답’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각 종목 단체와 체육회 모두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합니다. 기필코 종합우승으로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는 10월7일 울산광역시에서 막을 올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2천326명(선수 1천588명·임원 738명)의 선수단을 이끌고 출전하는 경기도선수단 단장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이번 체전에서 ‘영원한 라이벌’ 서울시와 ‘복병’ 경상북도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3년 만에 정상을 탈환해 ‘체육 웅도’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 회장은 “민선체육회 시대를 맞아 처음 정상 개최되는 체전에 나서게 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오는 12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규제가 많아 마음과 달리 선수단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답답하다”면서도 “금메달 120개 획득과 6만점 이상을 득점해 3년 전 잃었던 정상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숙박·식사 등 도대표 선수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착한 가격과 좋은 식단을 가진 식당을 찾고 홍보해 선수단이 좋은 여건 속에서 경기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선수들이 훈련과 대회 출전에 제약이 많아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비정상적 훈련 상황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체육회에서 그동안 각 종목단체 지도자들과 소통하면서 전력 보강에 힘쓰는 등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방역 관리 시스템을 정비했다. 선수단마다 숙소 방역 체계가 달라 전체적인 점검을 할 방침이다. 종목 사무국장 회의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종목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방역에 대한 안내 문자를 수시 발송할 예정이다. 방역 체계가 완화된 현시점이 선수단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방역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체전이 치러지지 않으면서 전력 파악이 쉽지 않고 정확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각 종목별로 당초 목표보다 1점이라도 더 획득한다는 각오로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종합우승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웅기자